전남교육청,생태환경교육지원단역량강화연수실시

"다양한 사례 공유 탄소중립실천 교육 전문성 신장" 현장의 다양한 교육사례 공유하고 발전방안 모색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 생태환경교육지원 단 운영을 통한 학교 현장의 탄소중립 실천 교육 강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1일~12일 보성다비치 콘도 및 인근 바닷가에서 기후위기 시대 생 태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생태환경교육지원 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 생태환경교 육 지원단 2022년 하계 직무연수를 실시했 다 연수에서는 교원, 교육전문직, 환경 관련 외부인사로 구성된 4개 분과(생물다양성, 생 태공간, 에너지 자원순환, 저탄소 식문화) 별 지원단이 함께 모여 현장의 다양한 교육사례 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이틀 동안 \triangle 효과적인 전남생태환경교육 지원체계 구축 방안 모색 \triangle 학교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원단 역할 모색 \triangle 지역 기반 실천과

연대로 생태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사례 공유 등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남의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 쓰레기의 위험성에 대한 강의를 들은 뒤 보 성의 인근 바닷가에서 폐플라스틱 등 해양쓰 레기를 수거하고 분류하는 실천 활동을 펼쳤

쌍봉초 이상은 교사는 "그물, 스티로품, 플라스틱 등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양생태계를 지킬수 있는 방법을 함께 실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고광진 미래인재과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전남의 생태환경교육 지원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전남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태교육의 나

침반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강진 월출학생수련장, 아동복지시설 행복캠프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이 여름방학기간 동안 수련장을 방문해 행복의 의미를 배우는 "2022. 월출행복캠프"를 지난 8일부터 실시하 였다

월출학생수련장(소장 김정수)에서 주최한 이번 캠프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에게 "우 리 같이, 우리 가치"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고,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월출행복캠프는 전남 도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8월 8일~9일 나주백민 원 53명, 8월 11일~12일 순천 성신원 33명이 각각 1박 2일 동안 "협동캠핑", "숲어드벤처", "달빛한마당", "공감마술"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월출학생수련장 숲 속 환경을 활용한 숲 어드벤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몽키클라이밍, 공중 슬랙라인, 숲속 짚라인 등의 체험을 진행하였다. 이 공간은 청소년들이 자연을 벗삼아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공간으로 자연을 활용한 특색있는 놀이공간으로 구성하였다. 강진=김영일기자

함평교육청, 자기주도학습캠프 실시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범미경)에서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함평 관내 중학생들의 방학 중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기초학력 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함평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는 '나는 언제 잘 배울까?', '나를 바꾸기 위해 알아야 할 것',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스킬'등의 주제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키워주기 위한 3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날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되는 성공의 법칙과 변화를 위한 마인드 셋팅으로 내가 언 제 잘 배울 수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으로 진 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학습방해요인과 학습 성장요인을 파악하여 나를 바꾸기 위해 무엇



이 요구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 막 셋째 날은 읽기, 말하기, 암기 등의 능력을 키워 전반적인 학습 향상 방법을 익히는 과정 으로 마무리하였다.

함평=김광춘기자

순천대 교육기부 동아리 '도담' 교육기부 우수 동아리 인증 획득



국립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는 2022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교육기부 프로그램 부문에 서 교내 재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도담'이 재인 증을 받아 5년 연속 교육기부 우수 동아리 인 증을 획득했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정부가 기업,

2017년 5월 활동 시작, 5년 연속 인증

공공연구기관, 대학, 동아리 등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기관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순천대학교 재학생 교육기부 동아리'도담'은 2017년 5월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식나눔형 교육기부 활동 ▲기획봉사형 교육기부 활동 ▲대외활동 및 공모사업 연계형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점을 인정받아 2018년 첫 우수기관 지정이후 2023년 말까지 5년 연속으로 인증을 이어가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동아리 활동에는 교내 최대 규모인 약 180 여 명의 재학생이 참여 중이며, 지역아동센터 와 초중학교를 방문하여 학습 지도 및 진로지 도 등을 하고 있다. '도담'은 ▲2020년 제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부총리 겸 교육부장 관상) 수상 ▲독도재단 주관 '대학생 독도 교 육·홍보 동아리' 활동 대상 수상을 통해 교육 기부 문화 확산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기도 했다.

인증과 관련하여 순천대 고영진 총장은 "재학생이 직접 계획하고 실천하며 여러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대학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교육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 수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교육청, 학생·지역주민·환경단체와 함께하는 환경보호 캠페인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희)은 고흥보성 환경운동연합(대표 김영관)과 함께 지난 11일 율포 솔밭 해수욕장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성생태환경 보호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환경보호 캠페인은 보성 지역의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학생·지역주민·환경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으로 ▲미세플라스틱 살펴보기 ▲해안가 플로깅하기 ▲해양생물 모 양 석고 방향제 만들기를 하였다. 해수욕장의 모래를 체에 걸러 미세플라스틱을 눈으로 살펴보는 활동을 통해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모래 해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나오는 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 리고 학생·지역주민·환경 단체가 함께 해안가 를 따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진행하였으 며 해양생물의 패각을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 의 석고 방향제를 만들어 봄으로써 해양생물 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었다.

보성=김덕순기자



